

미녀기사 탕리 '금녀의 집' 제자됐다

네웨이핑 9단, 첫 여제자 받아들여

중국 바둑의 기성으로 불리는 네웨이핑 9단이 '여자 제자는 절대 안받겠다'는 원칙을 깨고 탕리(사진) 초단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에 대해서 네웨이핑은 "왜 그렇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탕리를 강력하게 추천했다. 그들이 반대하지 않으니 나도 별다른 거절 사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탕리는 중국의 대표 미녀 기사이다. 그녀가 7살 입단했을 당시 바둑계가 들쭉날쭉 정도로 미모를 인정받았다.

네웨이핑은 탕리를 초단에게 직접 바둑을 가르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구리, 장하오 등이 대신 스승의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명문대학인 푸단대학에서 신문학을 전공하고 TV에서 바둑해설자로 활동하던 탕리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에도 출연하면서 더욱 인기몰이를 했다. /오광록기자 kroh@



신안군이 프로 바둑팀을 창단해 바둑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바둑리그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신안군 '바둑 메카' 되나

이세돌 기념관 이어 태평염전과 공동 프로팀 창단

바둑리그 선전 여부·신안 출신 이세돌 영입 관심

신안군이 국내 최대 염전인 태평염전과 공동으로 프로 바둑팀을 창단해 바둑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전남 영고였던 대방노블랜드 팀이 해체되면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전남지역을 대표할 바둑팀이 창단된 것이다.

지 전체 팀구성을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순위 경쟁에 돌입한다. KB국민은행이 3년 연속 메인후원사로 등록되며, KIXX, 티브로드, 신안군, 바투, 한게임 등 현재 5개 팀이 시즌 참가의사를 밝혔다.

또 이 지역 아마추어 바둑 저변 확대와 함께 이세돌 기념관을 건립할 신안군의 '바둑 명소' 만들기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팀 창단으로 KIXX가 광주를 다시 연고 지역으로 선택한다면 광주·전남지역은 2개의 팀이 올 시즌 창단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실에서 박우람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염전일업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한국의 바둑리그는 고단자들이 해외 대회 등 뼈대 갖춘 대국 일정 탓에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신안군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짜임새 있는 선수 구성과 팀워크가 발휘된다면 신안팀의 첫 해 선전에 기대해 볼 만하다.

이세돌 기념관 관련 사업도 추진하고, 2009 KB국민은행 한국바둑리그에 참가한다. 2009 KB한국바둑리그는 4월말까지

광주는 보호선수 이상호를 지지하고, 송태근, 박정상, 조현원, 김태희, 이성재를 추가로 지명했다.

지난해 보호선수 지명에서 영남일보 보호선수 이상호는 목진석 9단, 울산 디아체는 강동운 7단, 제일화재는 이세돌 9단, 한게임 온소진 4단, 월드메르디앙은 박정환 2단을 각각 뽑았다.

이 때문에 신안 출신인 이세돌이 신안팀에서 필 확률은 낮다. 하지만 제일화재가 아직 리그 참여를 발표하지 않았고, 신생팀 창단에 따른 한국기원의 배려가 뒤따른다면 이세돌이 고향팀에서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국 바둑리그는 고단자들이 해외 대회 등 뼈대 갖춘 대국 일정 탓에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신안군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짜임새 있는 선수 구성과 팀워크가 발휘된다면 신안팀의 첫 해 선전에 기대해 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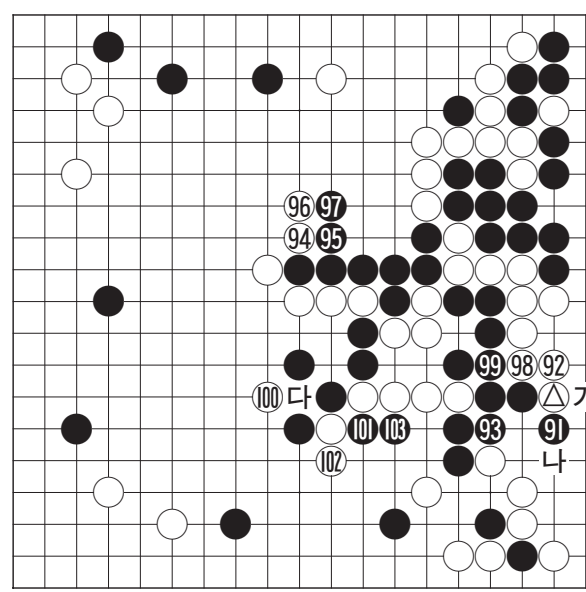
한편 지난 2007년 전남 영고팀었던 대방노블랜드는 창단 1년 만에 최하위의 성적만을 남기고 해체됐다.

신안=조원필기자 wncho@

제4기 원익배 10단전

국면을 지배하고 있는 박정환 결승 1국 7보 (91~103)

백 박정환 3단, 흑 박흥석 6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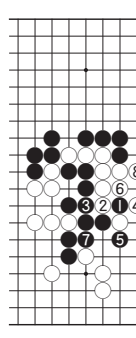
두 대국자의 전투가 갈수록 점 입기경이다. 박정환이 백 8로 붙인 수가 절묘한 수로 박흥석을 끈속스럽게 한다.

기본값아서는 '참고도'의 흑 1로 잡아채고 싶지만 그러면 백 2가 선수로 4로 잡게 되면 8까지 쉽게 살게 된다. 이에서는 바둑도 끝이다.

그에서 할 수 없이 흑 9로 막았는데 백 92로 늘고보니 흑 93의 수비가 필요해서 백이 사는 수가 생겨났다. 백이 '가'로 내려서 1선을 넘어가는 수를 불렀거나 '나'로 붙어 패를 하는 수가 있는 것이다.

박정환은 기세가 오른대로 올랐다. 바둑이 생각보다 잘 쏠려가고 있다. 우편을 일단 보류한 다음 백 94로 잇는 흑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수수에 빈틈이 없는 데다가 이 과정에서 흑이 전혀 반발할 틈이 없다는 것이 백이 국면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다.



<참고도 1>

백 100은 지나가는 길의 응수 타진인데 드디어 참지 못하고 박흥석이 흑 101로 끊어 처음으로 반발할 기회를 잡았다.

흑 103 백이 105로 나가거나 '다'에 끊는 것은 자중이 되어 요석인 백 석성이 잡히고 만다. 백은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해야 할까.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최근 한국 바둑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바둑 대표팀의 훈련 모습. <사이버로 제공>

몰라보게 달라진 중국 바둑

용·호·표 대항전 등 집단훈련 방식 성과

세계 최정상군을 지키고 있는 중국 바둑의 야성에 도전장을 던진 중국 프로기사들은 어떤 훈련을 받을까?

의 한 시대를 주도했던 일명 '7소룡' 세대로 장하오, 저우허양, 샤오웨이강, 루시허 9단, 왕웨이, 류징 8단, 덩웨이 7단 등이다. 호 팀은 구리 9단, 풍징 7단, 씨예허 7단, 왕시 9단, 후야오위 8단, 치우첸 8단, 류싱 7단 등으로 팀을 꾸렸다. 막내팀은 표팀은 천야오에 9단, 박문요, 저우루이양, 리저, 구웨이 5단, 스위에 4단, 튀차이 3단 등으로 구성됐다.

중국의 대표적인 훈련 방법은 선수들끼리 팀을 꾸려 실력을 쌓는 대항전이다.

용·호·표팀은 각각 70년대, 80년대, 90년대 출생을 위주로 편성했다. 최근 열린 첫 시합에서 튀차이호는 호팀의 선봉장 후야오위에게 승리를 거두었으나 표팀의 리저에게 패했다. /오광록기자 kroh@·사이버로

중국 국가바둑대표팀 내부에서 조직한 대회인 '용(龍)·호(虎)·표(豹) 대항전'이 대표적이다. 이 대회는 각 7명씩으로 구성된 용팀, 호팀, 표팀 3개 팀이 농심사관련배와 같은 연습전 방식으로 훈련하는 비공식 시합이다. 올해 구성된 용팀은 중국 바둑

원로 기사이자 입단 최고참(1958년 제7회 입단대회)인 김재구(71·사진) 8단이 지난날 31일자로 은퇴했다. 김재구는 부친 김병환 4단과 함께 '부자기사'로 유명했다. 장성 출신인 김재구는 지난 1995년 8단이 된 뒤 1969년 제9기 패왕전과 제14기 국수

장성 출신 김재구 8단 은퇴

'바둑판 소송' 윤기현 9단도



원로 기사이자 입단 최고참(1958년 제7회 입단대회)인 김재구(71·사진) 8단이 지난날 31일자로 은퇴했다.

김재구는 부친 김병환 4단과 함께 '부자기사'로 유명했다. 장성 출신인 김재구는 지난 1995년 8단이 된 뒤 1969년 제9기 패왕전과 제14기 국수

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입단하자마자 국수전 본선에 진출해 화제를 모았다.

또 바둑판 소송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윤기현 9단도 같은달 25일자로 한국기원 기사가지를 사퇴했다.

윤기현은 한국기원 부산지역본부장을 지낸 고(故) 김영성 한국기원이사 유족과 1년8개월여 간 역대 바둑판 관련 법정 다툼을 벌였다. 지난 1959년 입단한 윤기현은 1972년과 73년 국수전 2연패를 달성하는 등 한국 바둑계의 산증인이자 원로기사로 활약했다.

연락처 kroh@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고에 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자산주유소쪽으로 70m).

목장용지금매. 위 치: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목장용지: 6,390m(1,933평). 대 지: 476m(144평). 총 계: 3,734평. 건 평: 2,350m(약700평)건사, 돈사, 주택(104m) 버섯재배사 등. 연 락 처 010-3617-8810.

투자자모심. 월2부 수익금지급. 확실한 담보130%. 안전보장, 수익보장, 비밀보장. 최소 5,000만 이상 투자가능. 서강파이낸셜 062)653-7500.

한라기술의 공기열보일러를 설치하시면? 전기1+공기중 열에너지2+열에너지3. 분기 C유 대비 70%. 도시가스 대비 65% 절감. 전기보일러 대비 3배의 효율. 한 대의 기계로 냉방, 난방, 운수까지 3배의 효과. 인력월스트럭(주) 특판사업부 063)838-2231, 010-6794-0094.